

하나님을 따라 목양함

성경: 요 21:15-17, 벤전 5:2, 2:25, 엡 4:12-16

I. 목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 떼를 돌보는 것이다 — 요 21:15-17, 행 20:28.

- A. 목양이란 양 떼의 모든 필요를 돌보는 것을 가리킨다.
- B. 모든 양들은 충분히 공급받고 보살핌을 잘 받아야 한다.

II.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는 목양이 긴급히 필요하다 — 요 21:16, 벤전 5:2.

- A.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영 하나님에 의해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, 그런 다음 우리의 목자이신 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목양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의 생명 안에서 존재하고 자라게 하신다 — 요 3:6, 10:10, 14-16.
- B.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도록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는 이들을 목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— 엡 4:12-16.

III. 목양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다. 우리가 가르칠 수 없다면 목양할 수 없다 — 마 28:19-20, 9:35-36.

- A. 목양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함께 간다 — 엡 4:11.
- B. 우리의 목양은 가르치는 것과 항상 함께해야 하며, 우리의 가르침은 목양하는 것과 항상 함께해야 한다 — 행 2:42, 20:28, 골 1:28.

IV. 우리는 모두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 — 벤전 2:25.

- A. 우리의 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 상태를 감독하시며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황을 돌보신다.
 - 1.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은 주로 우리의 혼을 돌보는 것이다 — 시 23:3.
 - 2. 그리스도는 우리의 혼의 유익을 돌보시고, 우리의 내적 존재의 상태를 감독하심으로 우리를 목양하신다 — 비교 히 13:17.
 - 3. 이러한 목양은 내적이고 내재적이며 유기적인 위로하심이다 — 고후 1:3-4.
- B. 우리의 혼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, 우리에게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을 목양해 주시고,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,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필요들과 상처들을 보살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— 요 14:16-17, 고전 15:45하, 6:17.
 - 1. 공기 같은 영이신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에서부터 우리를 보살피 주신다.
 - a. 그분의 목양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혼의 각 부분에까지 퍼져 나간다 — 엡 3:17.
 - b.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모든 부분에 도달하시며, 부드럽고 유기적이며 모든 것을 포함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살피신다 — 살전 5:23.
 - 2. 이것은 거듭난 믿는 이들과 연결되고 합병되신,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내적인 목양이다 — 고후 13:14, 요 3:6, 14:20, 롬 8:16.

V.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해야 한다 — 뱀전 5:2, 빌 1:21상.

- A.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은 우리의 선호와 흥미와 목적과 기질을 따르지 않고, 하나님의 본성과 갈망과 길과 영광을 따라 목양하는 것이다 — 뱀후 1:4, 엡 1:5, 9, 3:21, 요 14:6.
- B.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‘하나님을 따라’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. 오직 하나님을 사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있다.
 - 1.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심으로,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 받아들여 그분을 살게 하는 것이다 — 요 11:25, 6:48, 57.
 - 2. 우리는 우리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을 살 수 있도록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있다 — 갈 2:20.
- C.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과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— 골 3:4, 뱀후 1:4.
 - 1. 우리는 신성한 생명으로 넘치도록 채워지고, 원천과 샘과 강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림으로 신성한 생명의 총체가 되고, 심지어 신성한 생명 자체가 되어야 한다 — 요 4:14, 골 3:4.
 - 2. 우리는 사랑과 빛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속성들의 방면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— 요일 4:8, 1:5, 롬 3:21, 25-26, 엡 1:4, 5:27, 뱀전 1:15-16.
 - 3.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생산 곧 하나님의 표현이 되어, 목양할 때 기질과 특이함을 가진 자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표현해야 한다 — 롬 8:19, 29, 고후 3:18, 마 16:24.
 - 4.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에 따라 그리고 그분의 경륜의 목표에 따라 그분의 양 떼를 목양하신다. 우리는 이렇게 목양하시는 그분의 기능에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— 엡 1:10.
- D.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한다 — 요 14:20, 고전 6:17.
 - 1. 성경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람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— 요 15:4, 고전 6:17.
 - 2. 하나님은 신성한 생명과 인간 생명이 함께 합해져 한 생명이 되고 한 생활을 하기를 갈망하신다 — 요 6:57, 갈 2:20.
 - 3.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며, 다른 이들을 목양하는 것에서 하나님이다 — 요일 5:11-12, 뱀후 1:4, 뱀전 5:2.

VI.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려면 우리는 목양하는 생명을 살아야 한다 — 요 21:15-17, 고후 6:1-13, 7:2-3.

- A. 그리스도로 조성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목양하는 생명을 살 것인데,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안에 조성되신 그리스도께 목양하는 방면이 있으시기 때문이다 — 골 1:27, 3:10-11, 14, 요 21:15-17.
- B. 목양하는 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넓어진 마음,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포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— 고후 6:11-13, 7:2-3, 비교 왕상 4:29.
- C. 목양하는 생명은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그들을 보양하는 생명이다 — 엡 5:29, 잠 25:15.
- D. 목양하는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, 곧 모든 상황에 적응하고 어떤 환경이든 다 받아들이며 어떤 조건에서도 일할 수 있는 생명이다 — 고후 6:1-13, 7:2-3.

E.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부드러운 마음에 따라, 그리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찾고 목양하는 영에 따라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해야 한다 — 눅 15:1-32.

VII.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목양은 상호 목양이다 — 고전 12:23-26.

A.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목양을 받아야 하고, 또한 그분과 하나 되어 서로 목양해야 한다 — 요 21:15-17.

B. 우리는 양들이자 목자들이기 때문에 상호적으로 목양하고 목양받는다.

C. 상호 목양할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서로 목양한다 — 고전 13:1-13.

D. 이러한 상호 목양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될 것이다 — 마 16:18, 엡 1:22-23, 2:21-22, 4:16.